

##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책 마련 나섰다

한빛원전 1·2호기 폐로(廢爐)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온 1·2호기 폐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한 만큼 원전 해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대체산업 육성 전략 등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가 2년 전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은 13일 군청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가 한빛원전 1호기를 2025년 전력 공급 설비에서 제외하고 2호기도 2026년 폐쇄기로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광군이 한빛원전 폐로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그만큼 원전해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한빛원전 해체(폐로) 대비 지역차원의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18년)'에는 한빛원전의 지역 파급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수치들이 적지 않다. 영광군의 지역내 총

영광군, 5~6년 뒤 해체 앞두고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자체 예산 2억 원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정부차원 지원책 발굴·대체산업 육성 전략 서둘러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폐로가 5~6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빛원전 전경, 오른쪽부터 첫번째가 1호기, 두번째가 2호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생산 중 총부가가치(2조7363억1300만원)의 65.19%를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이 만들어낸다는 점 등 한빛원전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실제로, 영광은 한빛원전이 2013년~2017년까지 납부한 지방세 누적액이 2659억원에 이르고 원자력발전지역발전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주변지역 사업

지지금(2017년 기준)이 군 세입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원전 의존도가 높다. 한빛원전의 공사·용역·구매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선순위로 해 체결한 금액만 전체 금액의 13.6%(215억·2014년 기준)에 달한다.

영광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자체 예산 2억원을 들여 한빛원전 폐로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정비 후 수명 연장'을 의결했다가 '조기 폐쇄'기로 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비롯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도 한몫을 했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서둘러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전남도가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한 '한빛원전 폐로 연구용역'이 영광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한빛원전 폐로가 미치는 지역경제 등 파급영향 분석 ▲원전 해체와 연관된 추가재원 및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발굴 ▲정부 해체산업 육성전략 및 유치가능한 대체산업 검토 ▲한빛원전 폐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대응전략 수립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전남도가 용역에서 제시한 ▲원전 해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및 원전 해체로 인한 지역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사용후 핵연료세 부과 방안 ▲원전 관광 체험학습 및 실험장소 구축 등에 대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2년 전인 2017년 말 확정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법 국회 통과

행복주택·직장어린이집·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 탄력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했지만, 법이 통과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국

유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등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2021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모델인 자동차 공장 준공에 맞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원을 투자해 빛그린 산단에 행복임대주택, 노사 동반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진입 도로 등을 짓는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준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객기 격추 인정 ... 수세에 몰린 이란

"적기로 오인한 사람 실수"

이란 군 당국, 참사에 사과

이란 군 당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최근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은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란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는 사람의 실수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경계"가 이뤄졌다면 "그런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의 실수로 그 비행기가 피격됐다"며 자신들에 의해 여객기가 추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군 당국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도 "미국의 모험주의로 인한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람의 실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추락 당시 해당 여객기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군사기지 인근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고 이란 ISNA 통신이 전했다. 이란은 여객기 추락 후 전날까지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미사일 격추설을 부인해 왔다. 앞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지난 8일 테헤란 외곽 이맘호메이니 공항에서 이륙한 지 몇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모두 사망했다. /연합뉴스

도올 김용옥 '전남인재학당' 수료식 ▶2면

'백제의 시인' 신동엽 문학관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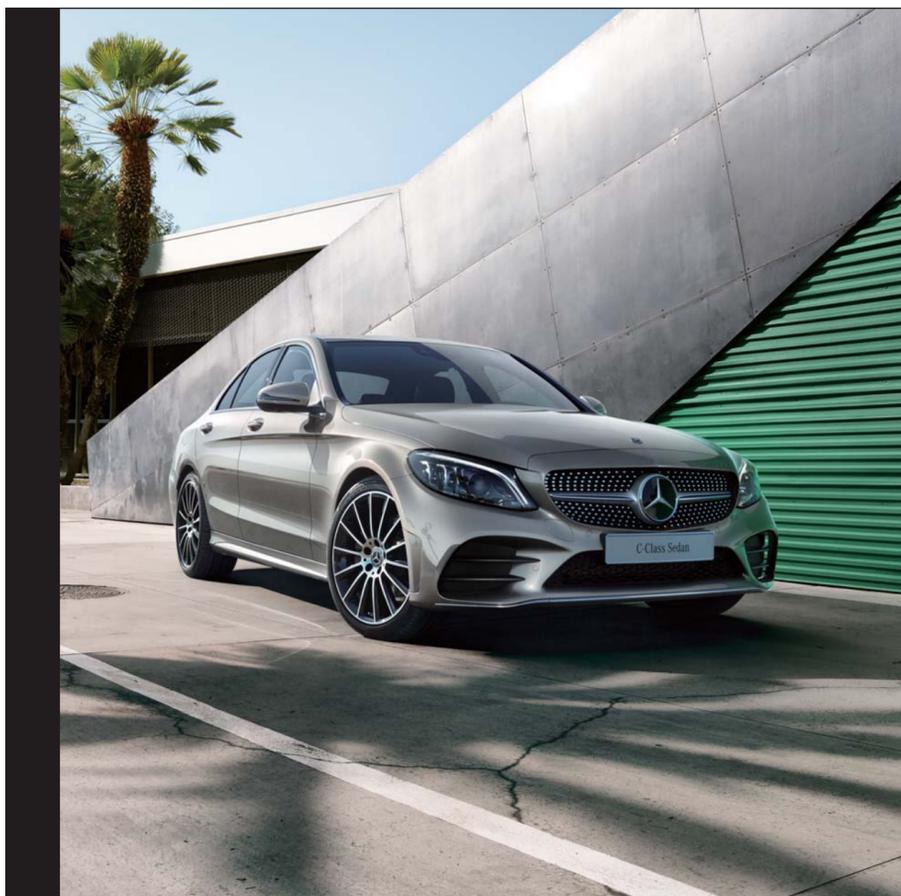
KIA 내아수 황윤호에 쏠리는 기대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겨울엔 눈썰매... 동심은 즐거워

12일 오후 방학을 맞아 광주시 북구 생용동 패밀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튜브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